

# 진도 서망항, 제철맞은 '가을 꽃게' 풍년

### 전국 생산량의 30% 차지...매일 20여척 어선 출어 청정 해역 꽃게 하루 위판량 8~10t 지역 경제 효과

전국 꽃게 생산량의 30%를 차지하는 진도 서망항에 제철 맞은 가을 꽃게가 풍년이다. 30일 진도군에 따르면 적조가 없는 진도 앞 바다에 어선들이 가을 꽃게 조업에 나서 지역 경제에 효과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진도군 조도면 해역에는 매일 20여척의 어선이 출어해 적당 500kg 잡아 하루 위판량 8~10t을 올리고 있는 등 진도군 서망항이 가을 꽃게로 풍어를 이루고 있다. 진도군 통발협회 김영서 어민은 "해마다 가을이 되면 진도 앞바다는 가을 꽃게가 풍어를 이루고 있다"며 "9월 중순부터 더 많은 양의

꽃게가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진도군수협을 통해 위판된 진도산 꽃게는 다른 지역보다 상품성이 좋아 현재 kg당 수협 경매 가격이 1만5,000원~1만8,000원으로 거래되고 있다. 냉수대가 형성돼 플랑크톤 등 먹이가 풍부한 진도 조도면 해역에는 갯바위 모래층으로 형성돼 꽃게의 서식지로 제격이고 연중 적조가 발생하지 않는 청정해역이다. 특히 군에서 지난 2004년부터 바다 모래 채취를 금지하면서 꽃게 서식 환경이 자연스럽게 조성됐으며, 매년 1억원 이상 꽃게 치어를



지속적으로 방류해 오고 있다. 진도군 수협 관계자는 "제철 맞은 가을철 진도 꽃게에 대한 소문이 퍼지면서 진도 서망항

에 관광객들의 발길이 줄을 잇고 있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기자

# '군정을 변화시키는 소통' 장흥군, 브라운백 미팅 개최

장흥군이 '군정을 변화시키는 행복한 소통'을 주제로 군수와 직원간 브라운백 미팅을 열었다. 브라운 백 미팅(brown bag meeting)이란 샌드위치 등 간단한 점심 식사를 곁들이면서 편하고 부담 없이 토론 등을 진행하는 것으로, 샌드위치의 봉투가 보통 갈색인 데에서 유래한 이름이다. 지난 26일 군청 상황실에서 열린 첫 브라운 백 미팅에는 주요 현안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팀장 및 담당자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업무 추진하면서 부딪히는 고충을 나누며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성 장흥군수는 "딱딱한 자리 대신 가벼운 식사를 통해 직원들과 조금 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소통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직원들과의 격의없는 소통을 통해 군정을 위한 의견과 고충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흥=김도영기자

# 강진회춘탕 인증업소 간담회 개최

### 10개 업소...강진 대표음식으로 명성 회복 도전의지 다져

강진군은 지난 24일 강진군도서관에서 회춘탕의 옛날 명성을 되찾아 보자는 각으로 회춘탕 인증업소 10개소 영업주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인증업소 영업주들은 이구동성으로 물가상승에 따른 가격인상이 불

가피하다며 가격인상 견의와 회춘탕이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진회춘탕은 2013년부터 명품화 용역, 권리화 사업, 표준레시피 보급, 회춘탕 취급업소 인증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보양음식을

많이 찾는 초·중·말복과 하절기 휴가철에 부모님을 모시고 회춘탕을 찾는 가족 단위의 손님이 많다. 그러나 여전히 1인용 취급업소가 없어 민원이 제기된바 군에서 1인용 판매를 제안해 보았으나 영업주들은 회춘탕의 특성상 국물맛을 내는 데 한계가 있어 오히려 회춘탕 명성에 맞지 않다고 주장한다. 군은 간담회를 통해 영업주들 독려하는 한편, 회춘탕 가격, 양, 맛에 대한 각 영업주들의 견해를 종합·분석하여 강진군 대표음식으로

써 명성을 회복시켜 나갈 방침이다. 또, 최근 물가상승에 따른 회춘탕 가격이 불가피하다는 영업주들의 의견을 수렴해 4인 기준 13만 원으로 정하고 군청 홈페이지 등 가격을 수정하기로 결정했다. 김학동 문화관광실장은 "강진대표음식으로 자리매김한 강진회춘탕의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 레시피를 준수하고 인증업소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손님에게 친절한 서비스 제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강진=김영일기자



# '장보고·최경주배 기업인 골프대회' 10월 개최한다

오는 10월 10일 해남 솔라시도CC에서 제1회 장보고·최경주배 기업인 골프대회가 개최된다. 장보고글로벌재단(이사장 김덕룡)에 따르면 8월 25일 최경주재단과 KTX용산역 회의실에서 "완도 출신의 세계적인 인물인 장보고 대사와 최경주 프로의 도전 및 개혁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재외동포 및 모국 기업인들이 참가하는 골프대회를 개최하자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장보고글로벌재단 김덕룡 이사장과 미국에 거주하는 최경주 이사장을 대신해서 주최한 최경주재단 상임 이사 등이 참석했다. 대회 참가 신청은 장보고경영아카데미(<https://changpogoedu.kr>)에 하면 된다. 장보고글로벌재단은 21세기 장보고 발굴 프로젝트를 장보고한상 어워드를 제정, 수상자를 선정하는 등 글로벌 인재 양성 사업에 주력하고 있으며, 최경주재단은 골프와 학 꿈나무 양성을 위한 후원을 하고 있다. 완도=기동취재본부

## 해남 오시아노 뮤직 콘서트, 여름 끝자락 달구다

8월의 마지막 주말 오시아노 관광단지 가 여름의 마지막 열기로 가득했다. 지난 27일 열린 해남 오시아노 뮤직콘서트 가 관람객들로 성황을 이룬 가운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가창력의 김종서, 울랄라세션의 아름다운 선율이 오시아노의 밤을 수놓았으며, 천명훈, 박혜신의 신나고 열정적인 트로트가 공연장을 뜨겁게 달궜다. 특히 '롤린'의 브레이브걸스, '회전' 목마의 소코도모가 공연장을 찾은 MZ세대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며 여름밤의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했다. 아름다운 해변과 오시아노 관광단지를 전국적으로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이번 뮤직 콘서트와 함께 26~28일 개최된 전라남도 캠핑박람회도 많은 이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국제행사로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해남=기동취재본부

# 강진우시장, 전국 송아지 공급기지로 우뚝

### 강진원 군수 우시장 방문

강진원 강진군수가 29일, 한가위를 앞두고 '한우 전자경매 대목장'을 찾아, 출하능가를 격려하고, 축협·한우협회 등 관련 단체 임원과 한우 시장 현안 문제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진원 군수는 출하에 참여한 한우 사육농가 및 우시장 종사자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고, 한우 가격과 농가의 애로사항을 장시간 동안 청취했다. 강 군수는 "한우 품질향상에 전력을 기울여 '1등급 이상 출현율 향상' 및 '생산비 절감'으로 농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사료값 상승 등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강진군은 민선 8기 '강진한우 명품 Top 브랜드 육성'을 위해 △맛축형 한우 개량, △생산비 절감, △강진한우 명품화, △직거래 활성화 등 한우산업 4대 핵심 분야를 설정해, 역점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를 위해 단계별로 ▲평균 등급을 향상(1등



급 75% 이상) ▲평균 생산비용 절감(20% 이상) ▲강진축한한우 명품화-송아지 브랜드화 투트랙(Two Track) 육성 ▲온라인 직거래 판매 활성화 제시하고, 강진 한우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황인준 환경축산과장은 "앞으로 사료값 상승과 개체증가로 인한 가격 하락 등 위기에 대비해 강진군 한우개량 통합협의회 운영으로 등급업을 향상시키고, 한우협회 등 관련 단체와 정기적인 소통을 통해 신규사업 발굴 추진 등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진=김영일기자

#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한국섬진흥원